

지역 소식통

고창경찰서, 청문감사실
인권보호 실천 릴레이 특 가제

고창경찰서 청문감사실이 전 기능을 순화하며 내외부 고객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화의 자리를 마련 진행 중이다.

매일 본서는 물론 지·파출소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고충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짧지 않은 시간을 보내는 한편 타·시도에서 발생한 의무위반행위를 공유하며 긴장감도 유지하는 등 내부를 탄탄히 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현장직원들은 "티 타임을 가지며 힘든 점이나 개선점에 대하여 귀기울여주고 개선점이 있을시에도 즉시, 직접 전하지 않고 문자 등을 이용 우회적으로 전해주는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등 청문 기능이 진심으로 직원들을 생각해 주는 게 느껴지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고 지금처럼 활동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현수 고창서장은 "내부직원들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고민사항은 없는지 두루 살펴보고 즉시성 있게 보완조치 해가는 것이 결국에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의회 김재오 의원
50번째 헌혈로 금장 훈장 수여

지난 14일 정읍시의회 김재오 의원이 정읍시 헌혈의집을 직접 찾아 50번째 헌혈을 하고 대한적십자사로부터 금장훈장과 포상증을 수여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김재오 의원은 68세의 노약자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건강관리를 통해 2009년부터 현재까지 7년여간 무려 50회의 헌혈봉사를 실천하고 소중한 생명 나눔에 앞장섰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주변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이번에 50번째 헌혈을 실시하여 아름답고 진정한 봉사를 실천하는 헌혈 홍보대사임을 다시 한 번 인증했다.

김재오 의원은 "오늘로 벌써 50번째를 맞이해서 매우 기쁘고 뿌듯한 날이며 헌혈 급장 훈장 수여를 계기로 앞으로 더 봉사하는 자세로 살겠다"고 소감을 밝히면서 "헌혈은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더 나아가 모두를 위한 사랑의 실천인만큼 앞으로 건강이 허락하는 한 헌혈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헌혈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산·들·바다 노을 어우러진 부안 마실길

‘북노랑 상사회’ 관광객 유혹

이번 주말부터 절정

산·들·바다와 노을이 어우러진 부안군이 특색 있는 테마 길로 조성한 부안 마실길 제2코스(송포~성천)에 북노랑 상사회가 이번 주말부터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 탐방객과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부안군은 부안 마실길 제2코스의 북노랑 상사회가 오는 19~20일 최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전국의 사진작가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노랑 상사회는 맑이 있을 때는 꽃이 없고 꽃이 있을 때 맑이 없어

있는 곳을 꽃은 있을 그리워 한다는 애절한 자연을 담고 있는 꽃으로 매년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 마실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전국에서도 유명한 서해바다 일몰과 함께 북노랑 상사회를 감상할 수 있어 무릉도원을 보는 듯한 황홀경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안 마실길 제2코스과 함께 대한민국 분단의 아픔이 있는 해안가 군부대 초소 및 철조망을 활용한 스토라텔링을 담고 있는 부안 마실길 제3코스(성천~격포항) 등도 걸기 명소가

부안군은 부안 마실길 제3코스

있는 1960~70년대 설치된 군부대 초소 및 시설물을 정비해 옛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장소로 조성했으며 철조망에는 가리비를 활용한 소원길을 조성해 가리비 곱질에 소원을 직접 적어보는 체험도 할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부안 마실길 제2코스는 북노랑 상사회와 서해바다의 해넘이를 함께 볼 수 있는 곳으로 황홀한 장관을 연출한다"며 "산·들·바다가 아름다운 부안에서 가족·연인·친구와 아름다운 추억을 쌓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립도서관, 초등어른독서교실 성료

정읍시립도서관에서 실시한 초등어른독서교실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시립중앙도서관과 신태인도서관에서 운영된 이번 독서교실은 초등학생들이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운영됐다.

중앙도서관은 '명화 읽어주는 도서관'이라는 주제로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저학년은 이중섭 화가, 8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고학년은 오르세 미술관 명화를 감상하고 작품을 활용한 나만의 도록(책)을 만들었고 신태인도서관은 '조선의 역사를 이끈 인물들'이라는 주제로 인물퀴즈 등

역사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혜민(북초), 이서경(동신초), 진성필(신태인초) 학생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상을, 류서연(동신초), 오재현(동신초), 김승현(도학초), 김기현(한솔초), 김가흔(서신초), 김나운(동신초), 김용현(신태인초) 학생은 정읍시장을 받았다.

도서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독서교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 통해 어린이들이 독서의 즐거움과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자발적인 독서습관을 형성하는데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독거 장애인세대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

정읍시 초산동주민센터, 민간자원 연계 소외계층 주택 청소 시행

정읍시 초산동주민센터(동장 천성중)는 16일 민간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독거노인의 주택 청소 및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했다.

초산동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복지허브화사업에 발 맞춰 소외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통합적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여러 단체와 연계하여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주거환경 대상 노인은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고 본인 스스로 생활능력이 부족하여 개인위생이나 집안 환경이 매우 불결한 상태에 노출되어 있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민간 자원봉사단체인 느티나무봉사단 20명의 자원봉사자들은 평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슬땀을 흘리며 주택 청소를 실시했다.

이에 초산동장은 "이제는 무더운 날씨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남다른 봉사정신을 가지고 활동에 임해주신

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고마움을 표시하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연계를 통해 복지허브화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할 것임을 밝혔다.

주민센터에서는 이번 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 위생 및 건강관리를 위한 요양서비스 연계, 밀난간 지원 등을 통해 대상자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 신청·접수

고창군이 이달 8일까지 2017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을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기동보일러를 사용하는 한부모 세대 혹은 소년소녀가세대다.

단 에너지바우처 및 연탄쿠폰을 지원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9월 8일까지 주민등록상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해야하며, 사업대상에 선정되면 난방유를 구입할 수 있는 선불형 카드 31만원이 지

원된다. 지원된 카드는 난방유 등유 구입이 가능하며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난방유 지원사업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이 겨울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난해에는 48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올해 더 많은 수혜대상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소방서, 골든타임 확보 위한 아파트 주차차단기 등록

정읍소방서가 재난현장 출동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관내 소방차량 22대에 대한 아파트 주차차단기 등록을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정읍 내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차단기는 총 7개소로, 최근 완공된 코아투원년가 등 신축 아파트가 포함되며 이번 신규 배치된 구급차에 대한 등록 또한 협조 안내문 발송 및

직접방문을 통해 정비했다.

관내 아파트 주차차단기 소방차량 번호 등록을 통해 화재출동이나 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현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파트 주차장 내 소방차량 전용주차 라인을 지켜 고가사다리차와 같은 특수차량이 신속하게 부수할 수 있도록 관리

사무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정읍소방서 관계자는 "주차차단기 등록 이외에도 전동시장 캠페인 소방차량 길 터주기 훈련 등을 통한 골든타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을지연습 21일부터 실시

고창군이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2017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군민 안보의식 향상과 비상시 대응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군민 체험형으로 실시되는 이번 을지연습은 정부 계획에 따라 군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서 비상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한 대비 절차와 시범식 실제 훈련을 진행한다.

특히, 오는 22일에는 고창 농산물유통센터에서 7개 기관과 참관 주민 등이 참가한 가운데 군민들이 직접 참

여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시범식 실제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계속되는 위협 속에 그 어느 때 보다 특별한 국가안보가 절실한 시기에 실시되는 연습인 만큼 국가 비상시 시 군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비상대비 대응능력을 점검하고 숙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고창=김영식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 Wine featuring Mulberry Wine and various gift sets. The ad includes text about the quality of the wine, a list of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a cartoon mascot character.